

7. 누가 선교사 멤버케어를 하는가 Who Does Missionary Member Care?

짧고 간단한 요약 Short & Simple Summary

“누가 선교사 멤버케어를 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답은 하나님이 선교사 멤버케어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역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듯이(돌보듯이) 서로 사랑하라고(돌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돌보고, 선교사들은 자신들을 돌보며, 선교사들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을 돌본다. 더욱이, 선교사들을 파송한 사람과 선교사케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을 돌본다. 다음은 이 장에서 다룰 주제들이다.

하나님의 케어(돌보심) God's Care
자기 케어(돌봄) Self Care
동료간의 상호 케어(돌봄) Colleague's Mutual Care
파송자 케어(돌봄) Sender Care
전문가 케어(돌봄) Specialist's Care
네트워크 케어(돌봄) Network Care

더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자료로 링크를 원한다면, 계속 읽기를 권한다

선교사 멤버케어 제공자들의 유형(types)에 대한 최상의 요약은 ‘복음주의 선교 계간지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001 년 4 월호에 나와 있다. “글로벌화: 최상의 실천을 위한 멤버케어 모델(Going global: A member care model for best practice)”이라는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의 글은 멤버케어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일련의 동심원으로 배열했다. 이 소고는 켈리 오도넬의 편저인 “선교사 멤버케어: 세계적 시각과 실천(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2002)”의 첫 장이다[역자주. 켈리 오도넬의 편저인 이 책은 위의 한국어 제목으로 최형근등 5인의 공동 번역으로 2004 년에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출판되었다]. 이 글의 영어본은 웹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doing-member-care-well>에서 볼 수 있으며 이 장의 개요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케어 God's Care

“너희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신명기 5:32~33)고 경고했다. 물론 그것은 약속의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그들을 부르신 땅에서 오래 섬기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임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지 못한다. 선교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 신명기 6:5)는 대계명을 따르고 있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매일 따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거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출애굽기 20:8~11)는 제 4 계명을 지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명한대로 시간을 별도로 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수 없게 한다. 웹 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mentalhealth.htm에서 소책자(brochure)의 파트 1 을 읽어 보라.

켈리 오도넬의 편저인 ‘선교사 멤버케어: 세계적 시각과 실천(*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2002)’의 21-22 장을 보라.

자기 케어 Self Care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 레위기 19:18)는 둘째 대계명은 두 부분—네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선교사들은 그들의 육신을 성령의 전(고린도전서 6:19~20)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남용한다. 바른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에 실패함으로써 선교사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사역으로부터 조기에 떠나게 된다. 그들 스스로를 돌보는 것(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절대로 아니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웹 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mentalhealth.htm의 파트 3 을 읽어라.

또한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htm>에서 ‘자기 관리(Stewardship of Self)’ 시리즈에는 자기 케어에 관련된 다른 소책자들(brochures)이 있다. 켈리 오도넬의 편저인 ‘선교사 멤버케어: 세계적 시각과 실천(*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2002)’의 23-25 장을 보라.

동료간의 상호케어 Colleague's Mutual Care

대계명의 둘째 부분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서로 케어하는 몇 개의 가능한 관계에서 다양한 선교사들을 포함한다. 아래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 같은 선교단체 내의 동료들
- 몇 개의 선교 단체에 속한 선교사 동료들
- 선교사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들(expatriates)
- 선교사의 사역 국가의 현지인들

선교사들이 누구와 관계를 맺게 되는지는 그들이 원하는 타입의 그룹과 그들이 그 타입 안에 누구를 넣고 싶은지에 달렸다. 예를 들면, 모두가 연약하고 비밀유지를 많이 원하는 상호책임 그룹이라면, 선교사들은 아마도 사람들이 표면적 수준에 머무르는 사회 그룹을 원하는 것과는 다른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다. 어떤 선교사들은 본인이 속한 선교 단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선호할지 모르지만, 다른 선교사들은 다른 선교 단체 사람들이나 선교사가 아닌 크리스찬 교민을 선호할 수도 있다.

물론 선교사들도 그들을 파송한 본국 사람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전화, 이메일, 스카이프(Skype), 인스턴트 메시지, 페이스 북, 앞으로 발명될 다른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 그러한 미디어들은 보완성이 취약하다.
- 선교사들이 말하거나 보낸 내용들이 “영구히(forever)” 남게 될 것이다.

켈리 오도넬의 편저인 ‘선교사 멤버케어: 세계적 시각과 실천(*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2002)’의 23-25 장을 참조하라.

파송자 케어 Sender Care

구원을 얻고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 쓸 때, 바울은 로마서 10:14~15 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기했다.

- 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 그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선교사들은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도록 그들을 파송한 개인들이나 선교 단체들을 갖고 있다. 닐 피롤로(Neal Pirolo)는 ‘파송자들(senders)’이 어떻게 그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자 ‘파송자로서 섬김(*Serving as Senders*, 1992, 2012 년 수정)’이라는 책을 썼다.

이러한 ‘파송자들’은 3 개의 큰 분류로 구분된다. 1) 개인들 그리고/또는 그들 가족, 2) 지역 교회 그리고/또는 교단, 3) 파라처치(parachurch) 선교 단체들. 피롤로는 다음같은 종류의 후원/지원을 강조했다.

- 도덕적 지원
- 물품 지원(logistics support)
- 재정적 지원
- 기도 후원
- 커뮤니케이션 지원
- 재입국 지원

닐 피롤로는 선교사들이 영구 귀국함에 따른 선교사케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재입국 팀: 귀국하는 선교사들을 돌봄(*The Reentry Team: Caring for Your Returning Missionaries*, 2000)’이라는 책도 썼다. 이런 책들은 미국내 선교사들의 주택을 관리하거나 거주할 집을 찾아 주거나 생일 또는 기념일 축하를 전달해 주는 등의 일들을 담당하는 개인들에게 적절하다. 이런 책들은 또한 개인적인 물품들을 선교사들에게 전해주거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식품저장실(pantry)에 음식을 채워주는 일을 담당하는 지역교회나 그룹들에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이 책들은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교단이나 선교단체에도 적절하다. 켈리 오도넬의 편저인 ‘선교사 멤버케어: 세계적 시각과 실천(*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2002)’의 26-30 장을 보라.

전문가 케어 Specialist's Care

때때로 파송자 케어가 선교사들의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일부 선교사들은 일부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기도 한다. 그러한 전문가들은 선교사들이 어떤 전문가 보다는 봉사자에게, 비-직접적인 상담보다는 실제적인 조언에, 객관성 보다는 공감(empathy)에 좀 더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켈리 오도넬의 편저인 ‘선교사 멤버케어: 세계적 시각과 실천(*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2002)’의 31 장을 보라.

오도넬(O'Donnell)은 전문가 케어를 8 가지 유형으로 기술하였고 각 유형에 해당되는 두 장을 포함시키고 있다.

- 목회/영적 케어: 32, 33 장을 보라.
- 육체적/의료적 케어: 34, 35 장을 보라.
- 훈련/경력 케어: 36, 37 장을 보라.
- 팀 빌딩/대인 관계: 38, 39 장을 보라.
- 가족/선교사 자녀: 40, 41 장을 보라.
- 재정/물류지원: 42, 43 장을 보라.
- 위기상황/긴급사태: 44, 45 장을 보라.
- 상담/심리적 돌봄: 46, 47 장을 보라.

네트워크 케어 Network Care

오도넬은 “전략적이고 지원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개발하는 것을 도와줄 국제적인 멤버케어 네트워크로부터의 케어—멤버케어 촉진자(facilitator)”를 요구하였다. 이에 관한 정보는 “전세계적으로 멤버케어를 연결하고 개발하는” <http://www.globalmembercare.org/>의 글로벌 멤버케어 네트워크에서 입수 가능하다.

다음은 이 시점에서 가능한 몇 가지 일들이다. 이 목록은 뒤의 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 컨퍼런스
- 워크숍/강좌들
- 시설/멤버케어 센터
- 해외 상담 센터
- 무료 또는 저가의 수련회
- 선교사 자녀(MK)/제 3 문화 자녀(TCK)를 위한 자원들

켈리 오도넬의 편저인 “선교사 멤버케어: 세계적 시각과 실천(*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2002)”의 48-50 장을 보라.

독자들에게 보내는 저자의 부탁. 만일 이 장의 질문에 대하여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다른 제안이 있다면 ron@missionarycar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에 3 가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엇이 더 포함 될 필요가 있는가? (2) 가능하다면 관련된 웹 주소를 링크로 첨부해 주십시오, (3) “누가 선교사 멤버케어를 하는가?”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저는 이러한 독자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이 책을 업데이트하고 증보할 계획입니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